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의 응급처치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A Study on Actual Conditions of the First-Aid Education for Child-care Teachers at Daycare Center for the Disabled Children

이효철* · 장용수**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현대의학의 발달과 건강관리사업의 향상 등으로 일반 어린이에 있어서 급성 및 전염성질환의 이환율은 감소된 반면에, 만성적인 장애를 가진 아동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관심이 많이 필요한 영역으로 대두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장애아동이라 함은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함을 갖는 아동을 말한다¹⁾.

2008년 기준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전담보육시설은 159개소 5,889명, 장애아통합보육시설은 768개소 3,113명으로 조기교육중재와 더불어 치료 재활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시설 종사자는 2,857명에 이른다.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이란 장애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상시 18명 이상의 장애아를 보육하는 시설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장애아전담 보육시설로 지정한 시설이다(보육사업안내, 2009)²⁾ 영·유아기의 어린이들은 자기 조절능력이 미숙하고 신변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다른 어느 시기보다 안전사

고의 위험성이 높다³⁾. 특히 장애아동의 경우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결함으로 인해 일반 아동들보다 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매우 높다. 돌발적인 사고나 질환으로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현장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는 사망률을 현저히 감소시키고 장애정도를 경감시킬 수 있다⁴⁾. 그러나 장애아동을 위한 안전교육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교사가 실제로 안전교육의 중요성이나 그 목적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다면 장애아보육시설에서 효과적인 안전 교육은 기대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의 방향이 일반 보육시설에 대한 연구는 많았으나, 장애아보육시설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아 보육시설에서 근무 중인 보육교사들의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보수 교육이나 교사 양성에 참고 자료로 제시하여 보육교사들의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시행되었으며, 또한 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유형을 분석하고, 응급처치 교육 요구도와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수준을 연구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아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들의 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인식정도와 교육 실시 정도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장애아동들과 함께 생활하는 교사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보육 기관에서의 안전 및 응급교육 현

* 광양보건대학 응급구조과

** 광양보건대학 작업치료과

투고일(2010. 3. 20), 심사완료일(2010. 4. 8), 게재확정일(2010. 4. 15)

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장애아 보육시설에서 안전 및 응급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보육시설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관한 보육 교사의 인식을 파악한다.
- 2) 보육교사의 안전 및 응급처치교육 현황,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교육 요구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자료 현황과 안전교육 실시 정도 및 방법을 파악한다.

II. 연구 대상과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10년 2월 3일부터 동년 3월 12일 까지 전라남도 동부유권내 소재하고 있는 장애아 보육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 101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작성법을 설명한 후 수집을 요청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101부 중 설문에 응답내용이 미비하거나 부적합한 5부를 제외한 96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도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질문지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5문항, 사고에 대한 인식 2문항, 교육 현황 6문항, 교육 방식 4문항, 교육을 받기 원하는 내용 13문항, 교육 자료 현황 4문항, 교육 실시 정도 및 방법 3문항, 총 3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software 12.0(SPSS Inc., Chicago, IL)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자료 분석 방법은 일반적 특성, 인식, 교육현황, 교육 방식, 교육자료 현황, 교육 실시 정도 및 방법은 빈도

와 평균, 그리고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교육 받기 원하는 내용은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96명(100%) 전원이 여자였으며, 연령은 20~29세가 52명(54.2%), 30~39세가 27명(28.1%), 40~49세가 13명(13.5%)이었으며, 50세 이상이 4명(4.2%) 순이었다. 학력은 전문대학 졸업 41명(42.7%), 대학교 졸업이 50명(52.1%), 대학원 졸업이 5명(5.2%)으로 대학교 졸업이 가장 많았으며, 종교는 기독교 45명(46.9%), 천주교 24명(25.0%), 무교 16명(16.7%), 불교 11명(11.5%) 순이었다. 교육경력은 5년 이하 77명(46.9%), 6년 이상~10년 이하 10명(25.0%), 16년 이상 2명(16.7%), 11년 이상~15년 이하 7명(11.5%) 순이었다<표 1>.

2. 보육시설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관한 교사의 인식

보육시설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관한 교사의 인식 중 보육시설에서의 사고 예방가능성은 조심하면 어느 정도 예방 81명(84.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적으로 예방이 가능 12명(12.5%),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3명(3.1%)으로 순이었다. 보육시설에서의 사고 발생가능성은 약간 높다 42명(43.8%), 약간 낮다 37명(38.5%), 매우 높다 37명(13.5%), 매우 낮다 4명(4.2%) 순이었다<표 2>.

3. 보육교사의 안전 및 응급처치교육 현황

보육교사의 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현황은 현재 보육교사를 위한 안전 및 응급처치교육기관의 유무는 있다 52명(54.2%), 없다 44명(45.8%)으로 응답하였고, 1개월 이내 37명(38.5%), 없다 19명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96

특 성	구 분	n	(%)
성 별	여 자	96	(100)
연 령	20~29세	52	(54.2)
	30~39세	27	(28.1)
	40~49세	13	(13.5)
	50세 이상	4	(4.2)
학 력	전문대학 졸업	41	(42.7)
	대학교 졸업	50	(52.1)
	대학원 졸업	5	(5.2)
종 교	기독교	45	(46.9)
	천주교	24	(25.0)
	불 교	11	(11.5)
	무 교	16	(16.7)
교육경력	5년 이하	77	(46.9)
	6년 이상~10년 이하	10	(25.0)
	11년 이상~15년 이하	7	(11.5)
	16년 이상	2	(16.7)

〈표 2〉 보육시설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관한 교사의 인식

N=96

내 용	구 분	n	(%)
보육시설에서의 사고 예방 가능성	전적으로 예방이 가능	12	(12.5)
	조심하면 어느 정도 예방	81	(84.4)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3	(3.1)
보육시설에서의 사고 발생 가능성	매우 높다.	13	(13.5)
	약간 높다.	42	(43.8)
	약간 낮다.	37	(38.5)
	매우 낮다.	4	(4.2)

〈표 3-1〉 보육교사의 안전 및 응급처치교육 현황

N=96

변 인	구 분	n	(%)
보육교사를 위한 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기관의 유무	있다	52	(54.2)
	없다	44	(45.8)
최근 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시기	1개월 이내	37	(38.5)
	2~6개월 이내	13	(13.5)
	7~12개월 전	18	(18.8)
	2년전	7	(7.3)
	3년전	2	(2.1)
	없다	19	(19.8)

(19.8%), 7~12개월 전 18명(18.8%), 2~6개월 이내 13명(13.5%), 2년 전 7명(7.3%), 3년 전 2명(2.1%) 순으로 응답하였다<표 3-1>.

보육교사가 장애인 전담시설기관의 근무 전에 받은 안전 및 응급처치교육은 과반수이상 63명(65.6%) 이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교육과정은 학부 때 강의 및 실습 22명(22.9%), 학부 때 강의 19명(19.8%), 기타 18명(18.85), 적십자사 연수과정 4명(4.2%)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받은 시간 수는 2시간이내 31명(32.3%), 3~8시간 13명(13.5%), 8일 이상 12명(12.5%), 2~4일 5명(5.2%), 5~7일 2명(2.1%)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 전 교육에 대한 도움여부는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 31명(32.3%), 약간 도움이 되었다 16명(16.7%), 매우 도움이 되었다 15명(15.6%), 도움이 되지 않았다 1명(1.0%) 순으로 대부분 도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육교사가 장애인 전담시설기관의 근무 중에 받은 안전 및 응급처치교육은 과반수이상 77명(80.2%)이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교육과정은 보육시설 자체교육 25명(26.0%), 특강 24명(25.0%),

교사 연수과정 23명(24.0%), 기타 5명(5.2%)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받은 시간 수 2시간이내 34명(35.4%), 3~8시간 22명(22.9%), 2~4일 11명(11.5%), 8일 이상 7명(7.3%), 5~7일 3명(3.1%)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 중 도움여부는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 35명(36.5%), 매우 도움이 되었다 22명(22.9%), 약간 도움이 되었다 19명(19.8%), 도움이 되지 않았다 1명(1.0%)으로 대부분 도움이 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표 3-2>.

4. 교사의 안전교육에 대한 교육방식

교사의 안전교육에 대한 교육 방식 중에서 교사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 시 교육방식은 과반수이상 실기 중심 80명(83.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청각 중심 11명(11.5%), 강의중심 3명(3.1%), 책자 배부 1명(1.0%), 기타 1명(1.0%)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교육은 누가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는 대다수가 각 분야 전문가 87명(90.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받은 교사 8명(8.3%), 기타 1명(1.0%)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 교육 실시 시 적당한

<표 3-2> 보육교사의 안전 및 응급처치교육 현황

N=96

근무 이전			근무 동안		
구 분	n	(%)	구 분	n	(%)
있다	63	(65.6)	교육유무	있다	77 (80.2)
없다	33	(34.4)		없다	19 (19.8)
학부 때 강의	19	(19.8)	교육과정	보육시설 자체교육	25 (26.0)
학부 때 강의 및 실습	22	(22.9)		특강	24 (25.0)
적십자사 연수과정	4	(4.2)		교사 연수과정	23 (24.0)
기타	18	(18.8)		기타	5 (5.2)
2시간이내	31	(32.3)	시간 수	2시간이내	34 (35.4)
3~8시간	13	(13.5)		3~8시간	22 (22.9)
2~4일	5	(5.2)		2~4일	11 (11.5)
5~7일	2	(2.1)		5~7일	3 (3.1)
8일 이상	12	(12.5)		8일 이상	7 (7.3)
매우 도움이 되었다	15	(15.6)	도움 여부	매우 도움이 되었다	22 (22.9)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	31	(32.3)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	35 (36.5)
약간 도움이 되었다	16	(16.7)		약간 도움이 되었다	19 (19.8)
도움이 되지 않았다	1	(1.0)		도움이 되지 않았다	1 (1.0)

시간과 요일은 대다수가 귀가 지도 후 73명(76.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18명(18.8%), 토요일 5(5.2%)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교육 실시 시 적당한 간격은 3개월에 1회 54명(56.3%), 기타 34명(35.45%), 2주회에 1회 8명(8.3%) 순으로 나타났다<표 4>.

5. 안전 관리 및 응급처치교육 요구 항목

대상자의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교육 요구 항목은 4점 만점에 전체 평균 평점이 3.47(0.41)이었고, ‘눈, 귀, 코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응급처치’와 ‘의식을 잃었을 때 응급처치’ 3.61(0.53)로 가장 높

<표 4> 교사의 안전교육에 대한 교육방식

N=96

변 인	구 분	n	(%)
교사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 시 교육방식	실기 중심	80	(83.3)
	강의 중심	3	(3.1)
	시청각 중심	11	(11.5)
	책자 배부	1	(1.0)
	기타	1	(1.0)
안전교육은 누가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교육받은 교사	8	(8.3)
	각 분야 전문가	87	(90.6)
	기타	1	(1.0)
안전교육 실시 시 적당한 시간과 요일	귀가 지도 후	73	(76.0)
	토요일	5	(5.2)
	기타	18	(18.8)
안전교육 실시 시 적당한 간격	2주회에 1회	8	(8.3)
	3개월에 1회	54	(56.3)
	기타	34	(35.4)

<표 5>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교육 요구 항목

(4점 만점)

내 용	M	(SD)
발생빈도와 위중도가 높은 사고유형	3.47	(0.61)
사고의 발생요인	3.03	(0.71)
시설 및 환경관리	3.03	(0.68)
사고 당한 유아의 상태 판정	3.46	(0.57)
베이거나 찢어졌을 때 응급처치	3.59	(0.59)
출혈 시 응급처치	3.56	(0.59)
떨어졌을 때 응급처치	3.58	(0.57)
눈, 귀, 코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응급처치	3.61	(0.53)
의식을 잃었을 때 응급처치	3.61	(0.53)
심폐소생술	3.59	(0.55)
화상 시 응급처치	3.59	(0.53)
화재 시 응급대처방법	3.55	(0.55)
장애아동의 안전지도 방법	3.51	(0.61)
전체 평균	3.47	(0.41)

게 나타났으며, ‘베이거나 찢어졌을 때 응급처치’ 3.59(0.59), ‘심폐소생술’ 3.59(0.55), ‘화상 시 응급처치’ 3.59(0.53) 등 순으로 응답하였다. 반면에, 가장 낮은 순위는 ‘사고의 발생 시 응급처치’ 3.03(0.71), ‘시설 및 환경관리’ 3.03(0.68) 순으로 나타났다<표 5>.

6.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자료 현황

대상자의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자료 현황의 제공여부는 과반수이상 요청하면 구할 수가 있다 58명(60.4%)이 응답하였고 구하기가 약간 어렵다 24명(25.0%), 쉽게 구할 수가 있다 10명(10.4%), 구하기가 아주 어렵다 4명(4.2%) 순이었다. 자료출처여부는 원장실이나 자료실에 비치되어 있다 40명(41.7%), 인터넷에 구입하였다 27명(28.1%), 각 반에 비치되어 있다 15명(15.6%), 기타 14명(14.6%) 순이었다. 자료이용여부는 가끔 이용 한다 45명(46.9%)이 응답하였고 대체로 이용 한다 28명(29.2%),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20명(20.8%), 항상 이용 한다 3명(3.1%) 순으로 응답하였다. 자료

도움여부는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 44명(45.8%), 약간 도움이 되었다 39명(40.6%), 매우도움이 되었다 10명(10.4%), 도움이 되지 않았다 2명(3.1%) 순이었다<표 6>.

7. 안전교육 실시 정도 및 방법

대상자의 안전교육 실시 정도 및 방법 중 장애아동을 위해 안전교육 실시 정도는 대부분이 연간계획표에 따라 정기적으로 78명(78.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위험한 행위를 할 때마다 15명(15.6%), 반면에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인 경우는 극소수로 나타났다. 학부모 안전교육 실시 정도는 과반수이상 56명(58.3%)이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났으며, 연간계획표에 따라 정기적으로 33명(34.4%), 사고발생 우려가 높을 때마다 6명(6.3%),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1명(1.0%) 순이었다. 학부모 안전교육 실시방법은 유인물 배부 43명(44.8%), 강의 32명(33.3%), 개별면담 9명(9.4%), 기타 7명(7.3%), 집담회 5명(5.2%) 순이었다<표 7>.

<표 6>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자료 현황

N=96

구 분		n	(%)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자료 제공여부	쉽게 구할 수가 있다.	10	(10.4)
	요청하면 구할 수가 있다.	58	(60.4)
	구하기가 약간 어렵다.	24	(25.0)
	구하기가 아주 어렵다.	4	(4.2)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자료 출처여부	각 반에 비치되어 있다.	15	(15.6)
	원장실이나 자료실에 비치되어 있다.	40	(41.7)
	인터넷에서 구입하였다.	27	(28.1)
	기타	14	(14.6)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자료 이용여부	항상 이용한다.	3	(3.1)
	대체로 이용한다.	28	(29.2)
	가끔 이용한다.	45	(46.9)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20	(20.8)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자료 도움여부	매우 도움이 되었다.	10	(10.4)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	44	(45.8)
	약간 도움이 되었다.	39	(40.6)
	도움이 되지 않았다.	3	(3.1)

〈표 7〉 안전교육 실시 정도 및 방법

N=96

변 인	구 분	n	(%)
장애아동을 위해 안전교육 실시 정도	연간계획표에 따라 정기적으로	75	(78.1)
	위험한 행위를 할 때마다	15	(15.6)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2	(2.1)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4	(4.1)
학부모 안전교육 실시 정도	연간 계획표에 따라 정기적으로	33	(34.4)
	사고발생 우려가 높을 때마다	6	(6.3)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1	(1.0)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56	(58.3)
학부모 안전교육 실시 방법	강의	32	(33.3)
	집담회	5	(5.2)
	개별 면담	9	(9.4)
	유인물 배부	43	(44.8)
	기타	7	(7.3)

IV. 고 찰

10세 미만 아동의 사망원인 국내의 1위는 안전사고이다^{5,6)}. 보육시설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관한 교사의 인식 중 사고예방가능성은 “조심하면 어느 정도 예방 가능”하다가 남⁷⁾은 “보육시설의 영유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진단과 프로그램 개발”의 연구에서 93.5%, 김⁸⁾은 “영유아 보육시설의 안전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에서 70.4%, 본 연구에서 84.4%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장애·비장애아동 보육교사 모두에게 안전사고에서는 조심하는 것만으로도 예방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생 가능성은 ‘약간 높다’가 남⁷⁾은 61.3%, 본 연구에서 43.8%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으며, 이는 장애·비장애아동의 사고를 경험하지 않은 보육교사가 사고를 경험한 보육교사보다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육교사의 안전 및 응급처치교육 현황 중 근무 이전 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기관의 유무는 김 등⁹⁾의 “유아교사의 응급처치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에서 과반수이상 60.8%, 본 연구에서 54.2%로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장애·비장애 보육시설의 보육교사 모두가 안전 및 응급처치교육기관에서 교

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시기는 김 등⁹⁾의 연구에서 ‘받은 적이 없다’ 47.2%, 본 연구에서는 ‘1개월 이내’가 38.8%로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보육시설이 다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근무이전 안전 및 응급처치교육 여부는 ‘있다’가 남⁷⁾의 연구에서 58.1%, 김 등⁹⁾의 연구에서 52.8%, 본 연구에서는 25.3%의 결과를 보였다. 교육과정은 ‘학부 때 강의’가 남⁷⁾의 연구에서 50.0%, 김 등⁹⁾의 연구에서 25.3%, 본 연구에서는 ‘학부 때 강의 및 실습’ 22.9%로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는 학부 때 교육과정에서 교육방법이 다르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시간수는 남⁷⁾의 연구에서 ‘2시간이내’가 27.8%, 김 등⁹⁾의 연구에서 20.8%, 본 연구에서는 32.3%로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장애·비장애 보육시설의 보육교사 모두 같은 교육시간이 2시간 이내 강의를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고, 도움 여부는 남⁷⁾의 연구에서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가 49.9%, 본 연구에서는 32.3%의 결과를 보였다. 이는 대부분 교육에 있어 보육교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근무 중 교육 유무는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로

응답한 경우 남⁷⁾의 연구에서 41.9%, 김 등⁹⁾의 연구에서 51.7%, 본 연구에서는 80.2%로 모두 높은 결과를 보였다. 교육 과정은 남⁷⁾의 연구에서 교육을 받은 교사 중 대부분 92.3%가 보육시설 자체교육 또는 특강을 통해 교육을 받았으며, 김 등⁹⁾의 연구에서는 교사연수과정 23.6%, 유아 기관 자체연수과정 18.5%, 본 연구에서는 보육시설 자체교육 및 특강 51.0%로 김 등⁹⁾의 연구와는 다르지만 남⁷⁾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교육시간은 ‘2시간 이내’가 남⁷⁾의 연구에서 76.9%, 김 등⁹⁾의 연구에서 34.8%, 본 연구에서는 35.4%의 결과를 보였다. 교사의 안전교육에 대한 교육방식 중 “교사를 위한 안전교육을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하면 좋습니까” 대해서는 남⁷⁾의 연구에서 실기 중심이 64.5%, 김⁸⁾의 연구에서 93.3%, 본 연구에서도 실기 중심 83.3%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교육이 강의 중심, 시청각 중심보다 모든 보육 교사들이 교육방식이 실기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안전교육은 누가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각 분야 전문가가 해야 한다’가 남⁷⁾의 연구에서 93.5%, 본 연구에서도 90.6%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교육에 있어 비전문가 보다 전문가에게 안전교육을 받기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적당한 시간과 간격은 ‘3개월 1회’가 56.3%, ‘귀가지도 후’가 7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남⁷⁾의 연구에서는 ‘6개월 1회’가 38.7%로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는 장애·비장애 보육시설의 교사들의 안전교육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음으로 해석된다.

안전 관리 및 응급처치교육 요구 항목 중 ‘눈, 귀, 코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응급처치’와 ‘의식을 잃었을 때 응급처치’ 항목은 김 등⁹⁾의 연구에서 각각 46.1%, 33.1%, 본 연구에서는 평점 3.6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로 김 등⁹⁾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고, ‘베이거나 찢어졌을 때 응급처치’ 3.59점, ‘심폐소생술’ 3.59점, ‘화상 시 응급처치’ 3.59점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장 낮은 순위는 ‘사고의 발생 시 응급처치’ 3.03점, ‘시설 및

환경관리’ 3.03점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자료 현황 중 남⁷⁾의 연구에서는 원장실이나 자료실 등 원내 54.8%에 비치되어 있어서 요청하면 48.4%가 구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원장실이나 자료실에 비치되어 있거나 인터넷에서 구입하였다 69.8%로 다른 결과를 보여 주었다.

안전교육 실시 정도 및 방법 중 김⁸⁾의 연구에서 영유아 안전교육실시 정도를 보면 응답교사의 73.3%가 상황에 근거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했고, 13.3%만이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대상은 다르지만 본 연구에서는 장애아동을 위해 안전교육 실시 정도 및 방법은 연간계획표에 따라 정기적으로 78.1%가 실시하고 있으며 위험한 행위를 할 때마다 15%,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거의하지 못하고 있다 6.2%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점은 장애·비장애를 비교해 볼 때 비장애 아동보다 장애아동의 안전교육의 목적인 바른 습관과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 활동을 체계적으로 계획해서 실시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학부모 안전교육 실시 정도는 58.3%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부모들이 대부분 맞벌이하는 가정들이 대부분이어서 일정을 잡기 힘든 상황으로 해석된다. 학부모 안전교육 실시방법은 대부분 유인물과 강의의 방법으로 (78.1%) 하고 있었으며, 그 외에 학부모 개별면담, 집담회, 기타 순서로 실시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장애아동들과 함께 생활하는 교사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보육 기관에서 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장애아 보육시설에서 안전 및 응급처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전라남도 동부유권 소재하고 있는 장애아 보육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 96명을 대상으로 장애아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들의 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인식정도와 교육 실시 정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보육 교사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보육 기관에서의 안전 및 응급처치교육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장애아 보육시설에서 안전 및 응급처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보육시설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관한 교사의 인식 중 “사고 예방가능성”은 조심하면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가 84.4%, 전적으로 예방 가능성이 12.5%, 예방할 수 없다가 3.1% 순으로 나타났고, 사고발생가능성은 약간 높다가 43.8%, 약간 낮다가 38.5%, 매우 높다 13.5%, 매우 낮다 4.2% 순이었다.

2. 보육교사의 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현황에서 교육기관의 유무는 있다가 54.2%, 없다가 45.8% 순으로 나타났고, 교육받은 시기는 1개월 이내 38.5%로 가장 높았고, 받은 적 없다가 19.8%, 7~12개월 전이 18.8%, 2~6개월 이내가 13.5%, 2년 전 7.3%, 3년 전이 2.1% 순이었다.

3. 보육교사의 근무이전과 근무동안의 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현황 중 교육유무, 시간 수, 도움여부의 항목에서 근무이전과 근무동안이 비슷한 결과를 보였지만, 시간 수에서 근무이전 항목에서 2시간이 내가 32.3%, 3~8시간이 13.5%, 8일 이상 12.5%, 2~4일 5.2%, 5~7일 2.1% 순으로 나타났지만, 근무동안 항목에서는 2시간이내 35.4%, 3~8시간이 22.9%, 2~4일이 11.5%, 8일 이상 7.3%, 5~7일 3.1% 순으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4. 교사의 안전교육에 대한 교육방식 항목에서 교육방식은 실기 중심이 83.3%, 시청각 중심 11.5%, 강의중심 3.1% 순으로 나타났으며, 안전교육은 누가 하는 것이 바람직 한가하는 항목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 90.6%, 교육받은 교사 8.3%, 기타 1.0% 순으로 나타났고, 적당한 시간과 요일은 귀가 지도 후가 76.0%, 기타 18.8%, 토요일 5.2% 순으로 나타났고, 적당한 간격은 3개월에 1회 56.3%, 기타 35.4%, 2주회에 1회 8.3% 순이었다.

5. 대상자의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교육 요구 항목은 4점 만점에 눈, 귀, 코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응급처치와 의식을 잃었을 때 응급 처치술이 3.61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베이거나 찢어졌을 때, 심폐소생술, 화상 시 응급처치가 3.59, 떨어졌을 때 3.58, 출혈 시 응급처치 3.56 등 순이었고, 전체 평균은 3.47이었다.

6.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자료 현황에서 자료 제공여부는 요청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가 60.4%, 자료출처 여부는 원장실이나 자료실에 비치되어 있다가 41.7%, 자료 이용여부는 가끔 이용한다가 46.9%, 도움여부는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가 45.8%로 각각 가장 높은 순위를 보였다.

7. 안전교육 실시 정도 및 방법에서 교사의 실시 정도는 연간계획표에 따라 정기적 실시가 78.1%, 위험한 행위를 할 때마다 15.6%,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4.1%,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가 2.1% 순이었고, 학부모 안전교육실시 정도는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가 58.3%, 연간 계획표에 따라 정기적으로 34.4%, 사고발생 우려가 높을 때마다 6.3%,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1.0% 순으로 보였고, 실시 방법은 유인물 배부가 44.8%, 강의 33.3%, 개별면담 9.4%, 기타 7.3%, 집담회 5.2% 순이었다.

결론적으로 여러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장애아 보육시설에서 안전교육 및 응급처치교육에 대한 필요도와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인식하고 있었지만 자료를 구하기가 약간 어려웠고 원장실이나 자료실에 비치되어 있어 자주 이용하기가 어려워 보였다. 따라서 향후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에게 정기적인 연수를 통해 지속적인 응급처치 교육과 학부모들을 위한 안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이강윤. 장애아동교육 요구에 대한 보건교사의

- 학교보건 업무인식.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2.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사업안내. 서울보건복지가족부. 2009.
 3. 이영애, 조인경. 안전교육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한국영유아보육학회지. 1997; 12:219-242.
 4. 권혜란, 정지연. 대학생의 응급처치 지식수준 실태조사. 한국응급구조학회논문지 2003; 7(1): 81-94.
 5. 통계청. 2003년 사망원인 통계연보. 서울: 통계청. 2004.
 6. Mace, S. E., Gerardi, M. J., Dietrich, A. M, Knazik, S. R., Mulligan-Smith, D., Sweeney, R. L., & Warden, C. R. Injury Prevention and Control in Children. *Annals of Emergency Medicine*. 2001; 38(4), 405-414.
 7. 남혜경. 보육시설의 영유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진단과 프로그램 개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8. 김경희. 영유아 보육시설의 안전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 4개 구립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9. 김미선, 박미화, 이효숙. 유아교사의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006; 13(1):91-114.

=Abstract =

A Study on Actual Conditions of the First-Aid Education for Child-care Teachers at Daycare Center for the Disabled Children

Hyo-Cheol Lee* · Yong-Su Jang**

Purpose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degree of recognition of safety education and its execution for child-care teachers at daycare center for the disabled children in Jeollanam-do. Ninety six child care teachers filled out the questionnaire an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Results :

1. The possibility of accident prevention by the day care teachers was a little higher in case of nearby education institution. The most appropriate period of safety education was within one month.
2. Majority of child care teachers had received safety and first-aid educations before and the education was done for less than 2 hours.
3. The best educational method was practice-centered education of off-duty time. The contents of first-aid education were bleeding, fall, shock, and burn.
4. The education material and book should be available to the teachers when they need the knowledge.
5. By the annual schedule, safety education should be conducted and provided to the parents.

Conclusion : This study suggested that reinforcement of contents related to emergency situation and actual first-aid as well as theory education in the process of parent and teacher education should be conducted on the basis of information of general conditions related to safety and first-aid education at the daycare center for the disabled children.

Key Words : Daycare Center for disabled children, First-aid education, Safety education

* Dept.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Gwangyang Health College

**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Gwangyang Health College